

총의치의 기능과 심미적조화

(Esthetics and functional
harmony of complete
denture)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최 대 군

의치에 있어서의 심미학이란 자연적이면서 아름다운 인공치와 그 주위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지만, 단순히 보철, 기공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적이면서 아름다움의 탐구를 말하며, 환자 자신의 자기 표현의 개인식임과 동시에 자기 주장의 기본적인 요소인 표정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안모를 형성하고 있는 해부학적인 재구조는 서로간에 협력하면서 발육하며, 일생을 통하여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또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기능도 원활하게 유지되어지며, 이러한 평형상태가 유지되어지는 동안의 상태가 가장 자연스런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생을 통하여 이러한 동적인 평형상태는 파괴될 수 있으며, 충치와 같은 비교적 적은 변화에서부터 크게는 생활조직의 형태나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연치의 발거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는 다양하다. 이와 같이 구강의 기능과 안모의 심미성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치과 치료시 구강기능의 회복과 안모의 심미 회복은 서로서로 의존 및 협조를 하는 구강 주위 재조직의 동적인 평형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전치를 포함하는 의치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치과의사는 안모의 심미성 회복이라는 점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표정이란 얼굴이 기본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얼굴의 하방 1/3에 해당하는 건강한 구강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심미성 회복의 성패라고 할 수 있겠다. 치과 심미학은 치주학적인 부분, 교합에 관련된 부분 등등 여러가지 전문 분야가 모두 기능적이면서 생리적인 그리고 구강이 한 단

위로서의 유기적, 종합적, 전체적인 면에서 성립되어야 한다. 음식물의 섭취는 생명유지의 기본이며 따라서 치과보철물을 제작할 때는 저작이라는 기능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나아가서 심미성의 회복은 환자의 심리적인 면까지를 회복할 수 있다면 치과의학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충분한 기능과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소, 개성적인 회노에라의 표현 등을 회복하도록 하는 학문이 치과심미학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치과의학에 있어서의 심미란 기능적인 면을 희생하지 않고 기능적, 생리적인 조화를 기본으로 하여야만 그 의미가 있겠다고 하겠다.

기능적이면서 심미적인 총의치를 위하여 몇 가지 기본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몇 가지 기본요소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심미적인 의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를 몇가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총의치의 인상면(Impression surface)

총의치의 인상면은 기본적으로 저작압을 받아주는 면으로서 충분히 넓어야 하며, 연조직과의 적합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지만, 이러한 인상면의 크기가 심미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치아의 상실로 인하여 흡수되어 있는 잔존 치조제를 인상면에 의하여 보상해 주어야, 치아와 치조골에 의하여 지지되는 안면 1/3의 외형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인상이 정확하게 채득되지 않는다면 Lip이나 Cheek의 지지(Support)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총의치의 심미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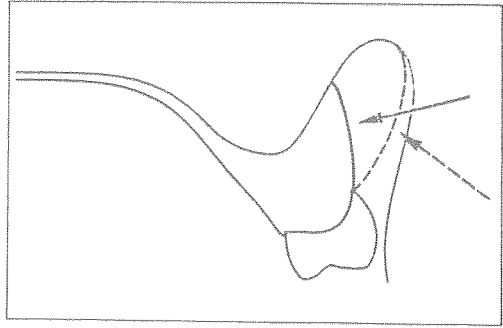


그림 1. 구강전정부의 인상이 충분히 확대되어 인상되지 않으면, 인공치를 기능과 심미적인 관점에서 자연치아가 있었던 위치에 배열하면 협측의 연마면은 교합면 쪽에서 외측으로 향하게 되며, 따라서 협근으로부터의 근입이 가해지면 의치는 전복되어 탈락하게 된다(실선부분). 두께가 적절하게 인상이 되면 연마면은 교합면 쪽에서 내측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협측으로부터의 외력이 발생되면, 의치는 치조제를 향하여 힘이 전달되는 결과가 되어서 의치의 유지, 안정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 또 적절한 의치상의 확대에 의한 Cheek의 지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심미적으로도 보다 자연스러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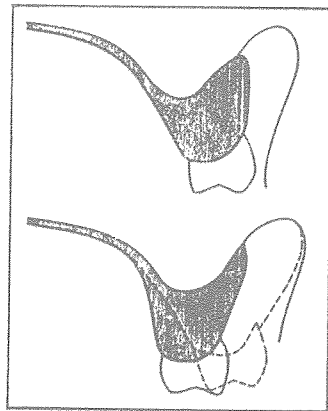


그림 2. 적절한 인상에 의하여 인공치의 위치를 자연치 본래의 위치에 배열할 수가 있으며(하단의 점선), 인상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의치의 유지, 안정 등을 고려할 때 인공치를 구개쪽으로 치우치게 배열할 수밖에 없으며(상하단의 실선), 이로 인하여 비기능적이며 비심미적인 의치가 될 수밖에 없다.

의 출발부터가 심미회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인상은 정확하게 충분히 넓은 면적을 피게할 수 있도록 하여 인상면에 의하여 구강주위조직의 회복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 총의치의 인공치아의 이상적인 위치는 자연치가 있었던 위치에 배열되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이상적인 인공치아의 위치를 찾는다는 정확한 인상체득이 그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인상을 정확하게 체득한다는 것은 심미성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2) 총의치의 연마면(Polished surface)

총의치에 의한 심미회복은 구체적으로 연마면 형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의치의 연마면 형태는 인상면과 인공치아의 배열 위치에 의하여 그 기본형태가 결정된다.

따라서 인상면에 의한 연조직의 지지 상태가 이루어질수 있는 인상면과 인공치아에 의하여 지지되는 연조직의 관계를 결정하면, 이것에 의하여 결정되는 연마면의 형태는 심미회복을 위한 기본틀은 갖추어

졌다고 하여도 되며, 이렇게 형성된 연마면에 의치주위근육과 조화하도록 요철의 부여 및 인공치은의 자연감등을 부여하여 심미성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총의치의 교합면(Occlusal surface)

총의치의 교합면은 인공치아의 상하 및 전후좌우적인 위치에 의하여 결정되며,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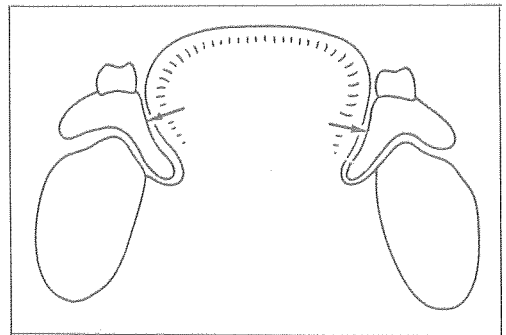


그림 4. 인공치아의 위치와 의치상의 인상면이 적절하게 결정되면 교합면과 인상면 사이의 연마면의 형태를 의치 주위 근육들과 조화하도록 형태를 부여하면서 심미적인 면을 고려하게 된다. 설측 의치상에 적절한 Concavity를 형성하여 주어 의치의 유지, 안정을 혀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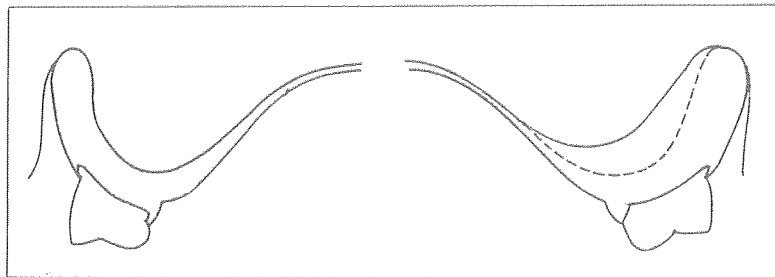


그림 3. 치조골의 흡수가 진행되어 치조골의 실질 결손이 많다 하더라도, 흡수된 치조골의 양만큼만 의치상의 레진이 내측으로 두껍게 형성될 뿐이며, 인공치의 위치는 원래의 위치에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의치의 윤택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공치아의 위치에 의하여 기능 및 심미성이 결정된다. 인공치아의 위치는 앞서 설명한 인상에 의하여도 물론 좌우되지만 수직 및 수평적인 악간관계에 의하여도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4) 총의치의 악간관계(Jaw relation)

악간관계의 부정확 함으로 인하여 II급 또는 III급의 치아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가끔 임상에서 수평적인 악간관계의 잘못으로 상하악의 관계가 비심미적으로 된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악간관계를 바로 잡아줌으로서 심미적인 총의치의 개선이 가능하다. 또 수직적인 악간관계의 잘못으로, 특히 교합고경을 낮게 설정한 경우는 임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치를 장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성 안모를 그대로 유지하여 비심미적인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음으로 의치제작시에는 정확

한 악간관계를 기록하여 기능적으로는 물론이고 심미적인 의치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의치는 인상면(Impression surface), 연마면(Polished surface), 교합면(Occlusal surface)의 3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면은 각각 의치의 유지, 안정, 지지, 심미성, 발음, 구강조직의 건강 등에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하여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미성을 위하여 단순히 연마면,만을 심미적으로 한다고 심미적인 것이 되는것이 아니다. 의치를 구성하고 있는 3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비로소 심미적인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3면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으며, 어떻게 하여야 기능적이면서 심미적인 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너무 심미적인 부분만 강조한 나머지 최우선 되어야할 기능적인 부분이 혹시 무시되는 경향은 없었는가 라는 반성과 함께 가장 기능적인 것이 가장 심미적일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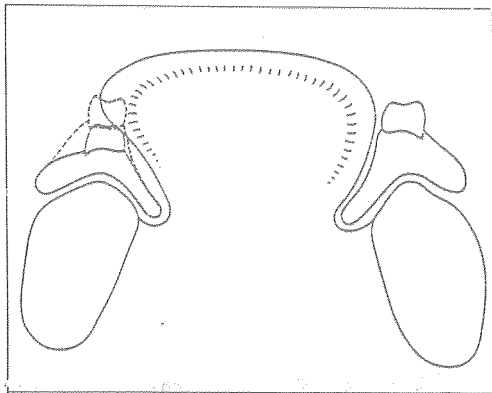


그림 5. 교합평면이 낮게 설정된 경우는 혀가 낮은 교합평면을 덮게 되며 따라서 혀는 저작시에 음식물을 교합면에 다시 올리기가 힘들어지며, 혀 자체가 물리게 되고, 교합평면의 저위로 인하여 비심미적인 의치가 된다.

이상은 지난번 서울치과의사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초록이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원고 완성이 늦어진 관계로 초록만을 수록하게 되었음을 독자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드리면서 원고가 완성되면 발표내용을 다시 게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